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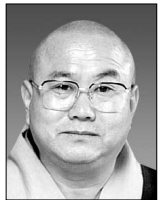
태·스리랑카 방문 문화교류 현해 오대산 월정사 주지는 7-15일 교구 말사 주지·총회의원 스님들과 태국·스리랑카를 방문, 불교학술 문화교류 활동을 했다.



일주문



청소년수련회회장 추대 선진규 조계종 전국신도회장은 5일 천안 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한국청소년수련시설회장에 재추대됐다.



14일 세종출서 총회 법대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장은 14일 오후 7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소연회에서 총회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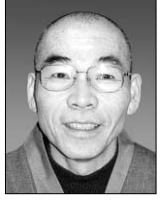
어린이 포교기금 일일차집 지원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부산지구는 15일 전통차집 '다전'에서 어린이 포교 기금마련 일일차집을 연다.



'자서전 집단상담' 12회 실시 이근후 불교상담개발원장은 13일부터 매주 목요일 면접상담 프로그램 '자서전으로 하는 집단상담'을 12회에 걸쳐 실시한다.



'왜 불교 배워야 하나' 법문 보선 전 해남 대흥사 주지는 13일 오전 10시 광주불교문화대학에서 '왜 불교를 배워야하는가'를 주제로 법문한다.



'서산 갈매기야...' 출판 법회 성관 수원 용화정사 주지는 14일 오후 2시 서울 불교방송에서 '서산 갈매기야 내 한산 합장의 뜻을 알려' 출판기념 법회를 봉행한다.



'신세계'와 복지사업공조 정성욱 서울 성북노인복지관장은 6일 신세계백화점 미아점과 복지사업 공조를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출가·열반재 특별정진 우학 대구 영남불교대학장은 부처님 출가제일과 열반제일 기간인 10-17일을 포교·용맹정진 주간으로 선포하고 특별정진에 들어갔다.



해인스님 초청 법회 봉행 의은 서울 불광산사 주지는 9일 1층 법당에서 제주 약천사 주지 해인 스님 초청 법회를 봉행했다.



미 태고사서 감사패 받아 허길량 목조각장은 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태고사로부터 태고전 불사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국위선양 공로 국민포장 도원 부산 심광사 주지는 부산아시안게임 미안마사포터즈 회장을 맡아 국위를 선양한 공로로 2월 26일 대한민국 국민포장을 받았다.



시찰요리 불철강좌 열어 선재 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장은 20일부터 4개월간 수월시 장안동 실습실에서 사찰요리 불철강좌를 연다. (031)243-22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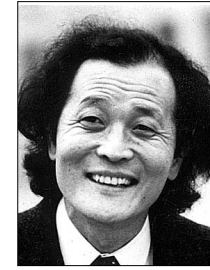
산사·티베트문화체험 진행 김규현 티베트연구가는 15, 16일 보성 대원사에서 산사체험과 티베트 문화 체험을 겸한 수행 프로그램 진행한다.(02)747-7033



◇김대중 前 대통령



◇김윤식 교수



◇소설가 조정래



◇이재주 교수

만해상 4개 부문 수상자 발표

평화 김대중 前 대통령

학술 김윤식 명예교수

문학 조정래 소설가

예술 이재주 교수

만해 한용운 스님의 불교사상과 평화사상, 예술혼을 오늘에 되살리기 위해 만해사상실천선양회(총재 법장)가 제정한 제7회 만해대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만해대상 심사위원회(공동대표 고은 이수성)는 3일 △평화부문-김대중 전대통령 △학술부문-김윤식 서울대 명예교수 △문학부문-조정래 소설가 △예술부문-이재주 서울대 교수 등 4개 부문의 수상자를 발표했다. 수상자에게는 순금 만해메달 및 1천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8월 9일 강원도 백담사에서 열리는 제5회 만해축전 행사장. 심사에는 백담사 주지 일문 스님, 순화

규 경기도지사, 박광서 참여불교재가연대 대표, 최동호 고려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만해대상심사위원회는 "김대중 전대통령은 한반도에 오랫동안 조성돼 온 긴장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남북화해 첫 단계인 남북정상 회담을 실현시키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정착에 헌신했다"라고 밝혔다.

심사위원회는 또 "김윤식 서울대 명예교수는 40년 동안의 강단 교육 현장에서 후진을 양성하고 한국 문학 및 인문학 분야에서 학문적 성과를 축적했다"고 평가했다.

심사위원회는 소설가 조정래 씨의 만해대상 수상배경에 대해 "60년대 이후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인간상을 형상화해 왔으며 80년대 사회 환경 속에서 대하소설 <태백산맥>을 완간함으로써 해방공간과 동족상잔시기를 살았던 삶과 죽음을 생생하게 재현했다"고 말하고 이재주 교수의 선정에 대해서는 "70년대 이후 민주·민중의 보편적 염원을 무용 속에 담아내고 한국 민족춤의 후진양성에도 기여했다"고 밝혔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쭈마민족 박해 세계 알리고 싶어"

JPNK 로넬 차크마 나니 사무국장



민족은 몽골 계통이라는 점에서 방글라데시 주류 '벵갈리' 민족과 언어, 문화, 종교적으로 완전히 다르다. 90% 이상이 불자인 쭈마민족은 이슬람 국가인 방글라데시에서 정치·종교적으로 박해를 받고 있다.

쭈마민족에게 최초의 박해가 시작된 것은 1947년. 영국에서 독립한 인도와 다시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분리될 때였다. 벵갈리 민족은 파키스탄 정부에 항의해 독립운동을 펼쳤고, 쭈마민족도 여기에 동참했다. 투쟁 끝에 1971년 방글라데시 정부가 수립됐지만 쭈마민족은 다시 탄압을 받게 된다.

"한국 NGO들과 연대해 쭈마민족의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싶습니다. 또 법무부에 낸 정치처 난민신청이 가급적 빠른 시간 내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서툰 한국어이지만 박해와 난민, 자치라는 단어에는 강한 힘이 들어있다. 문의: (019) 813-5955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한국고승유적 방치 안타까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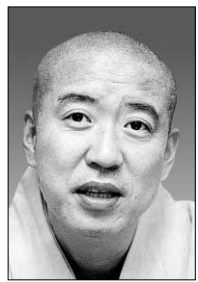
중국 항주·영파 등 다녀온 효탄 스님

최근 항주-영파-보타산-천태를 잇는 중국 지역 답사를 다녀온 효탄 스님(동국대 강사·사진)은 "안타까워"와 "부끄러움"을 안고 돌아와야 했다. 중국 천태종의 16세 조사를 지낸 고려 의통(927-988)스님이 20년간 머문 영파의 전교원(傳敎院)이 안내관 하나 없이 주춧돌 2개만 남아 있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마저 전교원 주변의 재개발로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

다는 말을 들은 스님은 영파 박물관 관계자에게 주춧돌을 옛 고려사관(高麗使館)으로 옮겨 줄 것을 부탁하고 돌아왔다고 한다.

효탄스님은 "중국에는 우리 나라 승려들이 남긴 자취들이 전 지역에 남아 있는데 후손인 우리들은 이런 고승들의 고귀한 정신을 기리는 데 너무 무심한 것이 아닌가 싶다"며 "우리의 고승들이 이루어 놓은 업적들이 자칫 한 줄의 기록 속에 묻혀버리게 될 수도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권형진 기자

불교신문 사장에 현응 스님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 현응 스님(사진)이 5일 불교신문 사장에 임명됐다.

현응 스님은 1972년 종성 스님을 은사로 수계했으며 개혁회의 기획조정실장, 총무원 기획실장, 12대 총회의원을 역임했다. 현재 조계종 제13대 총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으로 북한산 관동토로 반대운동 등 불교환경운동에 노력해 왔다.

스님은 "불교신문이 조계종 기관지인 만큼 종지종풍을 선양하고 정책 홍보 및 포교지 역할에 충실히 할 것"이라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한영우 기자

국보 4점 등 유물 27점 송성문 씨 박물관에 기증



<성문종합영어>의 저자 송성문(72·사진)씨가 6일 소장하고 있던 국보 4점과 보물 22점 등 모두 27점의 유물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했다. 기증한 문화재는 고려 현종대의 초조대장경인 <초조본현양성교론>(국보 271호) 등 목판본 불경을 포함한 고인쇄 자료 20건과 사경(寫經) 3건, 세종대왕 왕지 1건(1425) 등이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본지 411호 4면 현대불교 신행수기 시상식 기사 중 '총회종 총무원장 현오스님'은 '총회종 총무원장 현오스님'으로 바로잡습니다.



2대 신수회장 이남숙 씨

"포교와 수행에 매진하는 신수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월 28일 현대불교신문의 수기공모 당선자로 구성된 신수회의 제2회 회장에 선임된 이남숙 씨의 포부다. 제1회 신행수기 공모에서 특별상을 수상한 이 씨는 현재 조계종 포교사로 활동 중이다. 이 씨는 올해 회원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부회장단을 3명으로 늘릴 생각이다. 이은자 기자 ejee@buddhapia.com



나란다 삼장불학원 특강 성료

나란다 삼장불학원은 2월 21, 22일 서울 청량리 한국불교 금강선원 법당에서 각성 스님(부산 화엄사 주지) 초청 선요특강을 실시했다. 80여 삼장불학원생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특강에서 각성 스님은 "이번 불교공부를 계기로 수행에 더욱 정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나란다 삼장불학원은 사미 사집 등 4개 과정 2년 4학기제 전문강원 교육을 실시 중이다.(02)969-2410

제5회 진각논문대상 공모

5th Academic Award of Jingak Order

대한불교진각종은 불교 및 밀교연구를 촉진시키고 진각종 교학 확립의 일환으로 매년 '진각논문대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I. 진각논문대상공모

- ▶ 주 제: 불교 일반 3편, 밀교 일반 3편, 진각종 교학 2편
▶ 응모자격: 제한 없음
▶ 편양방법: 인적사항 1부 및 논문게획서 1부 (소정양식)
▶ 편양일정: 접수 마감 - 2003년 4월 15일, 당선작 발표 - 2003년 5월 6일 발표 예정, 당선논문발표 - 2003년 11월 21일 예정
▶ 당선작 및 상금: 각 편당 200만원

II. 연구소모임 공모

- 대한불교진각종은 불교 및 밀교 관련 대학원생(석·박사과정)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소모임을 공모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모집소모임: 중단 외부 2팀, 중단 내부 2팀
▶ 지원 자격: 대학원생 5 ~ 6명 이상
▶ 지원 내용: 중단 외부 월 30만원, 중단 내부 월 20만원(1년간 지원 예정)
▶ 편양 방법: 구성원 인적사항 1부 및 연구소모임 지원 신청서 1부 (소정양식)
▶ 편양 일정: 접수마감 2003년 3월 28일, 발표 2003년 4월 15일
▶ 심사 기준: ① 주제 또는 텍스트, ② 모임의 지속성, ③ 구성원의 짜질 및 지속성 여부

▶ 접수처: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 2동 22번지 대한불교진각종 교육원 중학연구실, 인터넷 홈페이지: www.jingak.or.kr / e-mail: manas7@hanmail.net, TEL: (02)913-0133 ~ 4 / FAX: (02)913-0135

* 본 논문대상 당선작에 한해 다른 논문 응모에 당선되었거나 기타 연구지원을 받은 논문의 경우 당선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주최: 대한불교진각종

제2회 한국불교학결집대회 발표신청안내

제2회 한국불교학결집대회가 2004년 5월 1일~2일, 중앙승가대학교에서 개최됩니다. 한국불교학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가는 본 대회에 불교학 관련 연구자들이 모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발표하실 분은 다음과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발표신청 기간: 2003년 3월 1일(토) ~ 4월 30일(수)
● 발표 분야: 불교학 관련 전 분야
● 신청 방법: 1. 홈페이지(www.skb.or.kr)에서 직접 신청, 2. 우편접수 (우. 100-715) 서울시 중구 필동 3가 26번지 동국대학교 교수회관 125호
● 신청 안내: 홈페이지 www.skb.or.kr, 전자우편 skbinfo@hanmail.net, 전 화 02) 2260-3128, 016-839-3607, 018-420-0996
* 발표신청서는 우선 논문제목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발표문 제출은 2003년 12월까지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대회 홈페이지(www.skb.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3년 3월 일

제2회 한국불교학결집대회장 종범 합장

* 후원계좌: 우체국 012328-01-008416(결집대회) / 조흥은행 371-04-517677(결집대회)